

중국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

A Study on the Exhibition Contents and Roles of the Opium War Museum in China

저자 (Authors)	오일환, 김준혁 Oh, Il-Whan, Kim, Jun-Hyuk
출처 (Source)	인문콘텐츠 (38) , 2015.9, 291-311(21 pages) Humanities Contents (38) , 2015.9, 291-311(21 pages)
발행처 (Publisher)	인문콘텐츠학회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21432
APA Style	오일환, 김준혁 (2015). 중국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 인문콘텐츠(38), 291-311
이용정보 (Accessed)	가톨릭대학교 성심 교정 203.229.***.4 2022/03/04 14:1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중국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와 역할

오일환* · 김준혁**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아편전쟁 관련 박물관과 기념관을 중심으로 전쟁의 기억을 재현하는 전시콘텐츠와 특징을 고찰하고 기념활동, 지역순회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재구성하여 활성화하는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관리가 소홀하였던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통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대규모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건립하였고 전통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사회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근현대사의 혁명유적지와 야외 문화유산을 대대적으로 복원 정비하면서 전국 중점문화보호단위의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지정하고 있다.

아편전쟁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광둥성은 영남문화의 발상지이며 주강지역의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으로 서구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고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이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의 표현으로 전시하는 아편전쟁박물관은 서양 제국의 부도덕한 아편무역과 불평등한 조약 그리고 치욕적인 침탈의 집단기억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부흥과 애국주의를 함양하기 위한 기념물과 전시시설의 재현공간이다. 또한 전시기념물의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아편의 폐해방지 교육을 비롯하여 전쟁의 기억과 근대의 역사인식을 애국주의 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제어: 아편전쟁박물관, 기억과 재현, 애국주의 교육, 전시교육콘텐츠, 관광자원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ohil@khu.ac.kr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조교수, jhkim1789@hanmail.net

접수일(2015년 8월 4일), 수정일(2015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2015년 9월 22일)

I. 서론

동아시아의 한, 중, 일 3국은 근대국가와 민족에 대한 집단인식의 격차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1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광복 70년, 중국은 반제국주의 항일전쟁승리 70년, 일본은 종전 70년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항일전쟁과 세계반파시스트 전쟁승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과학발전관과 양개백년(兩個百年)에 대한 중국몽(中國夢)의 군사적 형상이다.¹⁾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관리가 소홀하였던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통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애국주의 교육전시와 사회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근현대사의 혁명유적지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 등을 강화하고 야외 문화유산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 및 정비 사업으로 대규모의 기념시설과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중국에서 기념관과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기능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난을 극복한 충성과 승리의 상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대형의 전쟁관련 추모시설을 관광 자원화하고 민족적 애국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²⁾

중국에서 아편은 당나라부터 약물로 재배되었으나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였다. 18세기 중엽부터는 영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의 부도덕한 아편무역으로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전쟁의 패배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아편전쟁 이래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와 서방 열강의 침략, 통치자의 무능과 사회혼란과 부패 등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애국주의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민족 자신감과 자부심 증가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1)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추진하는 시진핑 주석은 승전70주년 행사에서 역사의 비극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화 발전을 위하여 패권주의를 추구하거나 영토확장을 앞섰다고 하면서 승전을 기념하는 70개의 깃발, 56개 민족을 뜻하는 56문 예포의 70발 축포와 함께 70분간 진행되었고 7만개의 풍선을 날렸다. 그리고 1945년 전쟁종식을 기념하는 45대의 오토바이와 청일전쟁 발발 121년을 기억하는 호위부대의 121걸음 이외에 강력한 최신식 무기가 대거 선보였으며 병력 230만에서 30만 명을 감축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과학발전관은 후진타오가 추진한 인본중심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론으로 과학중심의 합리적 사고이며 양개백년은 시진핑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략이다.

2) 徐仁立, 『中國紅色旅遊研究』, 中國金融出版社, 2011. 중국 홍색관광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의 기본문제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자원과 개발현황, 기능과 의의, 관광계획과 개발, 관광문화 건설, 관광시장 마케팅, 관광 목적지 평가와 관리, 관광 지속발전 가능성, 관광지역 협력 등 10개의 주제로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국가적으로 공식화된 전쟁의 기억은 서로 다른 기념물을 조성하고 애국주의적 기념물과 시설을 활용하여 집단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집단기억은 현재의 의도로 과거의 역사사건을 재구성하기에 역사적 갈등을 반영하거나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³⁾ 이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문콘텐츠의 접근과 활용은 과거에 국한하지 않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연구방법론의 확대와 현재의 역사문화콘텐츠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편전쟁박물관은 전국 중점문화보존단위로서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 지정되어 역사와 정체성을 함양하는 사회교육활동과 전시회 및 학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전시로 표현하는 전쟁기억과 재현공간의 전시콘텐츠를 애국주의 교육현장의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콘텐츠로 재구성하여 활성화하는 국가급 역사문화유산이다.⁴⁾

국내에서 중국의 근대화와 관련한 아편전쟁의 지역답사⁵⁾ 그리고 동아시아의 집단기억이나 전쟁기억, 기억의 정치학, 전쟁기념물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있다.⁶⁾ 그러나 아편전쟁 박물관에 대한 직접적 연구나 기억의 재현공간으로서 전시기념시설에 대한 전시의 특징과 교육콘텐츠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황에서 아편전쟁이 발발한 주장 삼각주지역의 현지답사에서 확인한 역사적 사실의 경관에서 과거 아편전쟁의 기억을 재현하는 공간인 기념관 및 박물관의 전시콘텐츠의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재구성으로 활성화하는 교육콘텐츠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⁷⁾

3)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대한 불공정한 정치적 선언이나 조약은 갈등과 분쟁으로 남아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독도와 동해 표기문제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중국과 조어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고구려 발해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왜곡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기념물과 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4) 우리나라에서는 아편을 역사적 사건보다는 국민 보건건강의 위해요소인 마약중독이나 알콜중독 등으로 인식하면서 국립정신병원의 마약중독치료소나 마약중독심리연구소, 알콜중독치료소,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마약이나 아편을 독품(毒品)이라고 담배처럼 피운다하여 흡연(吸煙) 혹은 금연(禁煙)한다고 하였다(본 글에서는 아편과 약물금지를 금독(禁毒)으로 표기함).

5) 박기수, 『명청사학회 중국역사유적 답사보고-廣東珠江三角洲 답사』, 『명청사연구』39, 2012, 239-334쪽.; 이은자, 『광동13행과 개항의 기억』, 『사총』76, 2012, 165-192쪽.; 임태홍, 『태평천국 지도자 홍수전의 생가마을 고찰』, 『사립』34, 수선사학회, 2009, 237-268쪽.

6)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85, 2003, 166-174쪽.; 안병직,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한국사회의 집단기억』, 『역사학보』197, 2008, 220-227쪽.; 여문환,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정치와 국가정체성-한중일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박경석,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갈등-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41, 2009, 167-187쪽.; 김정현,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의 애국주의와 평화문제』, 『역사학연구』35, 2009, 177-212쪽.; 조은경, 『한·중·일기념관의 전시내러티브와 동아시아 역사인식-독립기념관,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47, 2014, 197-223쪽 등이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지명과 인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인명과 지명을 한자어발음으로 표기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아편전쟁의 장소이던 동관시 호문의 아편전쟁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였다. 광둥지역의 광주에 대한 역사 지리적 배경과 경제적 중심지 역할은 오일환·이미, 『중국 광저우(廣州) 도시경관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한국

II. 아편전쟁의 기억을 재현하는 전시콘텐츠 공간

1. 역사지리적 배경

광둥성의 동관은 동경113°31'와 북위22°39'에 자리하고 있다. 동서 70km, 남북 46km에 이르는 면적 2,465km²로 광주, 혜주, 심천 등 9개 행정구와 접하면서 동강과 주장이 바다와 합류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다. 주장삼각주지역에는 9개 도시와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자리하고 있다.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거대한 경제 도시권으로 자리하면서 경제 개방구에서 도시 중심의 주장삼각주경제구, 지역중심의 범주강삼각주경제구로 확대되었고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10개국과 자유무역구로 확대하고 있다.⁸⁾ 동관시는 주해와 심천 경제특구에 비하면 중소도시 기반의 경제지역이며 1980년대 주장삼각주의 경제발전지역이며 개혁개방의 선두주자로 세계의 공장이며 대외 무역창구이다.⁹⁾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일대일로정책으로 광둥지역을 영남문화의 발상지로서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으로 서구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고 주장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실크로드기금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기반으로 아세안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하나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

동관의 호문에서 발생한 제1차 아편전쟁은 영·중전쟁 혹은 통상전쟁이라 한다. 중국 근대사의 시발점이자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청나라는 낙후된 농업과 수공업의 자급자족경제와 토지점병 증가에 따른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적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영국은 산업혁명과 기계공업의 발달로 모직물 등이 대량생산되면서 공산품 판매시장의 새로운 확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외무역에서 차, 비단, 도자기 등의 유럽 수출이 활발하였지만 영국은 높은 관세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자 아편 밀무역을 시작하였다.

아편 밀무역으로 중국경제가 황폐화되고 국고가 부족하였으며 사회적 보건과 건강이 피폐해졌다. 청나라 정부는 8차에 걸쳐 아편금지령(1821-1834년)을 공포하였으나 근절

사진지리학회지』25(2), 2015, 1-13쪽 참조.

8) 許桂靈, 『中國泛珠三角區域的歷史地理回歸』, 科學出版社, 2006, 17-24쪽.

9) 광둥성의 광주에서 2시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광심, 경주, 광불, 불개, 광혜 등) 건설과 철도(광구, 경구, 광삼 등) 및 공항(홍콩, 광주, 심천, 오문, 주해 등)과 항만의 연결로 인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을 확보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국제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심항, 광불, 주오 등 도시간의 거대한 공간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발전은 문화사업의 중요한 박물관 건설이나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http://baike.baidu.com/東莞>).

되지 않자 호광총독 임칙서를 흠차대신으로 파견하였다(1838.12).¹⁰⁾

임칙서는 아편 2만여 상자를 압수하고 호문 바다에서 폐기하였다. 또한 영국병사가 구룡에서 촌민을 살해한 사건으로 일체의 무역을 금지하고 영국인을 출국시켰다(1839.8.15). 이에 영국은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함대파견을 결정하였고(1839.10.1) 중국은 항구를 봉쇄하고 영국과의 무역단절을 선언하였다(1840.1.5). 이에 영국은 군함47척과 육군 4천 명이 광둥 주강입구에 도착하면서 1차 아편전쟁이 시작되었다(1840. 6). 청나라는 영국에 패배하여 중국 역사상 최초로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을 체결(1842)하여 배상금을 비롯하여 조계지와 항구를 개방하고 무역을 허가하였다.¹¹⁾

2. 아편전쟁 기억의 재현장소

중국은 3400여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1800여개가 무료 개방하고 있다. 중국은 박물관을 도시건설의 기초시설로 인식하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박물관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선진국형의 세계적인 박물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²⁾ 심천과 동관은 10여년 사이에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동관시에 31관의 박물관이 있다.¹³⁾

동관시에는 대표적으로 근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아편전쟁관련 유적지와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매년 400만명이상이 방문하는 아편전쟁박물관과 해전박물관 그리고 임칙서 소연지, 사각포대, 위원포대 등의 항영(抗英)전쟁유적지가 있다. 2006년 이후 동관전람관(展覽館), 동관과기박물관(科技博物館), 광둥 동강종횡기념관(東江縱橫紀念館), 가원박물관(可園博物館), 자강유적지박물관(蚝崗遺址博物館)을 비롯하여 원숭환기념공원(袁崇煥紀念園)이 있다.¹⁴⁾

10) 양광총독 등정정(鄧廷楨), 광둥수사제독 관천배(關天培) 등과 협의 하여 금지방안을 마련하였다(1839. 3). 그리고 월수서원(粵秀書院), 월화서원(越華書院), 양성서원(羊城書院)의 645명 공원시협에서 아편집산지와 판매자 성명, 소매상인, 과거의 금연폐단, 금연의 방법 등을 시험하였다.

11) 廣東省博物館 編, 『廣州 百年滄桑』, 花城出版社, 2003, 1-4. 19세기 이래 중국 유일의 대외통상 항구이며 아편전쟁의 발발지인 광주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금연투쟁, 아편전쟁과 항쟁, 아편무역, 영국과 프랑스의 점령, 조계지 형성, 도시 풍광 등 8개 부분으로 진귀한 사진 도판과 간단한 해제가 있다.

12) 송상광·오일환 역, 『중국 박물관 현황과 대학박물관 발전방향』, 『고문화』 7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2, 135-146쪽. 이외에 중국의 박물관 역사는 오일환, 『중국의 박물관-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고문화』 52, 1998, 253-273쪽이 있다.

13) 광둥성의 박물관은 186관(명단 169관)이며 문물149관, 민관 24관(20), 행업13관이다. (<http://www.stats.gov.cn> 통계국, 2014년) 광둥문물국에 등록된 44관의 민간박물관에는 동관에 9관이 있다. 시관할의 8관, 진(가)관할 9관, 민간박물관 14관이다. (<http://www.dg.gov.cn> 統計信息-2013통계년감-문화, 위생과 체육 12쪽).

14) 이외에도 동관시에는 신석기시대의 춘두유적지(村頭遺蹟址)이외에 관음사(觀音寺)와 금강주탑(金鰲洲塔), 유화탑(榴花塔), 광둥 4대정원인 가원(可園), 원숭환 거주지(袁崇煥故居), 황기고묘(黃旗古廟) 등

1) 아편전쟁박물관

아편전쟁박물관은 1839년 6월3일부터 25일까지 흠차대신 임칙서가 몰수 아편을 소각한 것을 기념하여 건립된 것이다. 1957년에 소연지터에 임칙서기념관으로 건립되었으나 1972년에 아편전쟁 호문인민항영기념관(虎門人民抗英紀念館)으로 개명하였다. 1985년 호문 임칙서기념관으로 다시 개칭하면서 아편전쟁박물관 명칭을 추가하였다. 해군에서 관리하던 위원포대관리소와 사각포대관리소를 1987년에 인수하였다.¹⁵⁾ 1999년 개관한 해전박물관(海戰博物館)을 포함하여 80萬㎡의 면적으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인 2개의 대형 임칙서소연지(林則徐銷烟池)와 사각(沙角)포대, 위원(威遠)포대 등 아편전쟁 관련 의 문물보호와 연구, 전시, 교육하는 종합적인 전문박물관으로 기념성과 유적지 성격이 혼합되었다.



임칙서소연지구지 입구



아편전쟁박물관 전경
(필자촬영)



해전박물관 전경

아편전쟁박물관 입구의 문루에 리펑(李鵬)이 쓴 임칙서소연지 구지(林則徐銷烟池舊址)는 전국중점문물문화단위, 국방교육기지, 전국금독교육기지, 전국애국주의교육시범기지(1997), 국가 4A급 관광지(2004)와 함께 시진핑 정부의 정책을 보여주는 '4中全會 정신을 학습하여 관철하고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 한다'는 표지판이 있다.¹⁶⁾ 그리고 아편전쟁 관련 의 문물자료를 이용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청소년교육기지이며 광둥성 국방교육기지, 광둥성 1차 중화문화전승기지, 광둥성 1차 홍색관광시범기지이다(<http://www.yppzz.cn>)

다수의 고대 건축군과 종족사당, 명인 거주지, 고묘, 탑, 기념비 등의 명승고적과 문물이 있다. 항일전쟁시기에는 대령산항일사실진열관(大嶺山抗日史實陳列館)과 유화항일기념정(榴花抗日紀念亭)이 있다. 국가 4A급 풍경구가 16개, 3A급이 3개, 2A급이 1개소가 있다.

15) 中國博物館學會 編, 『中國博物館志』, 華夏出版社, 1995, 806-807쪽.

16) 김태만, 『시진핑의 '중국몽'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문화연구』37, 2013, 5-31쪽; 이동윤, 『90년대 중국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21, 중국학연구회, 2001, 321-344쪽에서는 정권안정과 체제유지, 전통 및 역사교육과 함께 애국주의 교육의 전개양식을 국정 및 당의 업적홍보, 민족단결과 국가통합,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강조로 나누었고 정치적 함의에서는 국가민족주의로서의 애국주의,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애국주의의 역학관계를 고찰하였다.

해전박물관은 호문진 남쪽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전시실과 광장, 제방 등이 있으며 주변의 여러 포대유적지를 관리하면서 개관하였다. 해전박물관은 아편전쟁 해전을 기본으로 전시하면서 2001년도 전국 10대 명품전시에서 최우수 설계상을 받았다. 전시실 입구를 들어서면 중앙의 돛구조 로비를 중심으로 4개의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다. 아편전쟁 해전을 전시한 제1, 제2진열실 그리고 제3진열실인 호문해전 전경그림관, 제4진열실은 중국 3대 금독교육기지로서의 역할로 나뉘어 있다.

사각포대유적지는 주장 입구를 방어하는 배산임해의 요새로서 1800년에 건립되었으며 호문해구의 가장 중요한 제1방어기지이다. 문루(門樓), 빈해대(瀕海臺), 임척서기념비, 망해루, 공로포(功勞砲), 캘리버대포(kruber cannon), 불랑기포(armustrong canon), 순절자 의총, 포어대(捕魚臺)와 산정포가 있다. 전쟁에서 공로가 있다하여 이름 붙여진 공로포는 1835년 광둥 불산에서 제조한 것으로 중량 3천6백kg, 사정거리 1km이다. 캘리버 대포는 양무운동기간에 독일에서 1889년 제조한 것을 수입한 것으로 중량 2만1천여kg, 10km의 사정거리이다. 불랑기포 역시 양무운동기간에 수입한 것으로 중량 7천kg이다.

위원포대유적지는 정원(靖遠)포대, 진원(鎮遠)포대, 사두만(蛇頭灣)포대, 남산(南山)포대 등의 진지와 함께 입체적인 해방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호문요새의 제2방어기지이다. 1841년 2월 관천배가 영국과의 해상전투를 지휘한 곳으로 남방의 해상장성(海上長城)이라고 부른다.

2) 삼원리 인민항영기념관(三元里人民抗英紀念館)

삼원고묘의 인민항영기념관은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이며 광주시 학생애국주의 교육기지로 평영단 구지(平英團 舊址)라는 표지가 있다. 삼원 고묘는 청나라 초기에 설립되었으며 앞뒤 건물의 2진4합원의 구조이며 도교의 天, 地, 水의 3원을 근본으로 건립하여 북제신(北帝神)을 모시고 있다. 1840년 6월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킨 후 1841년 5월 29일 영국군이 삼원리를 공략하자 삼원리 부근의 인민들이 5월30일 영국사령부의 포대를 습격하고 우란강(牛欄崗)으로 유인하여 영국군 200여명을 몰살하였다.

제2차 아편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군에 의하여 훼손되었다. 1958년 11월 항영투쟁사료 진열관을 건립하였으며 1961년 기념관으로 되었다. 청나라 광주의 사묘 건축적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고묘에는 항영의 문물자료와 전투 복원도, 서신, 사료 서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입구에는 4문의 대포가 있고 내부에는 칼, 창, 영국군 군복, 각종 무기와 전리품 및 전황 그림, 지휘 깃발인 삼성기 등이 있다. 부근의 공원에는 항영열사기념비를 세웠다.

항영기념관은 사회적 관심도와는 달리 규모가 작고 소장품이나 전시 형태가 사회적 배경이나 의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투관련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볼거리가 부족하고 공감

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의 대로변이고 고가도로의 아래에 위치하여 소음과 분진이 심하여 전시와 관람환경이 좋지 않다. 또한 삼원리가 역사문화 명촌으로 지정되었으나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이다.¹⁷⁾



항영기념관 외경

삼원고묘와 항영기념관
(필자촬영)

항영열사기념비

3) 광동성 박물관

광동성박물관은 본래 1959년 개관한 성급 종합박물관이며 1급박물관이고 광주시 애국주의교육기지과 사회실천교육기지이다. 2003년 새로 건립된 박물관은 광주 주강 신도시 중심의 광주대극원, 제2소년궁, 도서관 신관에 둘러 있으며 남쪽에는 주강이 흐르고 있다. 17만여건의 소장품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3개 부분 5개 전시실이다.



광동성박물관 전경

광동역사문화전시관 입구
(필자촬영)

광동근대사 전시실

역사관은 광동역사문화전시이고 예술관은 서화, 도자기, 베틀, 목조각이며 자연관은 광동성의 자연 자원관이다. 4층 전시실의 광동역사문화전시관은 4개의 주제로 전시하고 있

17) 기념관 발전계획의 제안에는 삼원리의 대로변을 인문역사와 건축이 결합한 다기능의 보행도로로 만들고 남북의 문루와 종축사당을 주축으로 고묘공원과 기념비공원을 결합한 경관지구로 만들어야 한다. 혁명 관련 의 조각상이나 문물을 전시할 수 있는 회랑을 조성하고 원림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면적이 크지 않아도 구관과 어울리도록 새로운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련 문물을 보강하고 연구물과 서적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을 비롯한 사진자료와 기념물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기념관은 전국 100대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홍색관광노선을 개설하고 혁명문물유적지 관련 기록물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三元里人民抗英斗争纪念馆的现状和展望).

다. 첫 부분은 1500여 건의 유물과 사진, 조각, 모형, 전자매체, 복원장면 등 3백여 장의 사진으로 활용하고 있다. 12만년 전 구석기 시대의 마파인 두개골 화석과 19종의 화석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광둥 3대 민족(廣府, 潮山, 客家)의 생활, 거대한 용주, 공부차 등의 특색을 전시하고 있다.¹⁸⁾

둘째는 광둥의 해상실크로드 관련으로 도자기를 나르던 남송과 명대의 고대 광둥선박, 서양과 교류를 담당하던 13행, 18-19세기 서양의 화풍과 기법을 접목하여 자연풍경과 풍물 그림인 광둥 특색의 외소화(外銷畫) 등을 전시하면서 광둥인의 개방과 포용성을 보여 주고 있다.

세 번째는 광둥의 근대사의 역정으로서 항영투쟁과 양무운동, 유신운동, 신해혁명, 국공합작, 민족공상업자 등의 유명인물에 대한 전시이다. 전시실 중앙에는 임칙서, 강유위, 양계초, 료중계(廖仲愷), 손문, 이대교, 황준헌(黃遵憲) 등의 동상을 배치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광둥의 항일전쟁에 대하여 흑백의 역사적 사진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다.

3. 아편전쟁박물관의 구조와 특징

아편전쟁박물관은 야외전시장, 전시관, 디지털전시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야외 전시장으로는 중앙통로 중심으로 커다란 항영(抗英)군중조각상, 대형의 대포, 임칙서 조각상 그리고 전시관이 있다. 왼쪽에는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하여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조성한 2개의 커다란 연못인 소연지가 있다.¹⁹⁾



항영군중조각상



임칙서 조각상
(필자촬영)



소연지와 기념비

전시관 왼쪽의 호문고사(虎門故事)라는 전시관에는 호문의 역사 연혁을 재현하였으며

18) 司徒尚紀, 『嶺南歷史人文地理-廣府, 客家, 福佬民系比較研究』, 中山大學出版社, 2001.

19) 임칙서호문소연기(銷煙記) 비문에는 '도광19년(1839)정월 임칙서의 지휘아래 6월3일부터 25일까지 237만여근의 아편을 소각하였다'는 내용의 기념비(광둥성문물관리위원회에서 1997년 7월 1일 건립)가 있다. 그리고 옆의 '아편을 소각한 연못(銷毀阿片煙池)'이라는 비문에는 237만6254근이라는 구체적 수량과 함께 소연지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소연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풍토와 생활모습, 인문환경 등 호문의 역사와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야외에는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다.

1) 아편전쟁박물관의 전시콘텐츠

전시관 형태는 옛 포대진지의 웅장한 형태인 4층의 2500m²면적이며 호문소연과 아편전쟁 해전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주요 전시는 아편의 유래, 아편무역, 호문소연 등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324장의 역사적 사진과 209건의 문물, 10개의 경관, 8개의 인물 모형, 10폭의 유화그림, 18개의 현대식 전시시설 등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다.

소연지의 목판, 임칙서 글씨, 항영에 사용하였던 무기 그리고 당시 영국군에게서 획득한 서양식 총과 대포 등 실물자료이다. 그리고 아편전쟁 중·영 해전진열은 아편전쟁시기의 중국과 영국의 군사력 비교, 전쟁 상황 및 영국 침략자에 항거하는 중국군의 사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의 호문해전 전경벽화관은 유화로 그린 배경과 지면의 조형물을 위주로 호문 해전의 장렬함과 비장함을 표현하였다. 이외에 전국금독교육기지전람은 독품 상식, 중국정부금독역사, 청소년 흡독문제, 독품 형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칙서 금연과 아편전쟁사실(史實)진열은 아편전쟁의 기원과 경과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서 영국의 아편 밀수와 침략의 만행을 전시하면서 임칙서와 중국 인민들의 역사적 공훈과 침략에 항거하고 민족적 절의와 애국주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4층으로 건립된 박물관의 전시관 입구를 들어가면 임칙서의 호문소연 지휘 장면을 부조로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다. 왼쪽 벽면에는 '1839 호문소연, 근대 중국 반침략투쟁의 서막'과 오른쪽에는 '1839 호문소연, 역사에 없었던 휘황한 장거'라는 글귀가 있으며 옆에 안내 데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1층 전시실은 2개의 구역으로 아편 유래와 서양의 동양 확장, 13행과 중서무역, 삼각무역과 아편밀무역, 아편의 폐해 등에 대하여 실물과 모형 그리고 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첫 번째 도입부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양귀비 꽃으로 장식한 패널과 대형 벽면 그림 그리고 모형을 이용하여 아편의 유래를 시작으로 아편의 주요 성분, 아편의 제작과정 그리고 아편 단어를 세계 각국의 글자로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전시관의 주요부분은 서방의 동방확장과 함께 정상적인 중서무역에서 아편 밀무역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아편의 폐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서양의 동방확장은 영국 동인도회사 모습과 월해관 문루의 모형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면서 공업문명의 영국 동방 확장과 농업문명의 청나라 일구통상이라는 대외정책을 대비시켜 전시하고 있다. 영국깃발과 함께 동방식민지의 총본부인 동인도회사를 패널로 전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영국의 공업혁명 발달과 함께 포르투갈의 마카오 점거, 러시아의 중국침략,

스페인의 대만침략, 네덜란드 중국 도달, 스웨덴 중국도달, 미국 중국항해를 비롯하여 영국의 매카트니 사절단의 중국 출사와 함허스트 중국 도착, 나이퍼 호문 도착 등으로 서방 각국의 동방 확장에 대하여 점거, 침략, 도달, 항해, 출사, 도착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정상무역 중서무역에서는 영국의 모직물, 시계, 기구류 등과 중국의 차, 실크, 도자기 등의 무역품을 전시하고 있다. 광주 13행에서는 고대 광주를 배경 그림으로 선박, 부두, 건축 등의 축소 모형으로 경관을 재현하고 있으며 '100년 13행'의 영상물을 상영하여 역사적 현장감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높이고 있다.

아편밀무역 부분에서는 아편 창고의 화물칸 모습과 밀무역 선박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생동감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과 영국, 인도의 삼각무역관계 그리고 아편 밀무역과 인도의 아편재배지 분포도, 종류, 집산지, 가격 이외에 아편무역 종사 국가 및 아편 수입량, 영국과 인도의 아편판매 이윤(1797-1817년), 선박과 운수 노선 등을 유물과 집중적으로 전시하면서 영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편폐해에서는 대생연관(大生煙館)이라는 아편 흡연관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그 폐해를 알리고 있으며 아편무역(1833-1839년)의 증가량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편 흡연도구 관과 흡연하는 관병의 모형지역을 지나면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 아편폐해 관련 수 십장 사진을 패널 형태로 부착하고 있다.

2층 전시실은 금연과정과 호문소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편의 폐해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와 청나라의 금연조치 그리고 대형 파노라마를 활용하고 임칙서의 금연조치에 대하여 전시하고 있다. 금연과정에서는 아편폐해를 지적하는 유명 인사들의 글과 문서를 전시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세계의 금연 목소리항목에서 아편무역에 대한 죄안, 런던의 반아편협회 선언 등과 함께 대형의 벽면그림으로 연설장면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나라의 금연에 대한 목소리로 청나라의 역대 금연조치사항, 세계 최초의 금연령 그리고 이금파와 엄금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진과 패널 그리고 문서로 전시하고 있다.

호문소연 장면에서는 대형의 수평선 배경의 유화그림과 모형을 비롯하여 웅장하던 호문 요새 장면을 복원하였고 영상물 등을 방영하여 생동감 있는 전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외국상관과 호문 봉쇄에 대한 자료 등을 패널로 전시하고 있다. 벽면을 가득메운 대형의 전경 그림과 마네킨 등의 모형을 활용한 소연광경을 웅장하게 재현하면서 소연역사기를 제시하고 있다.

3층 전시실은 아편반대에 대한 기록으로 아편 범람의 폐기와 수입종결을 전시하고 있다. 맺음말로 시작하여 아편 반대에 대한 기록과 임칙서의 유배와 그의 행적을 패널로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편범람의 재폐기에서는 아편 무역의 주요 집산지, 상해지역 아편 수입량과

가격(1847-1858년), 주요 아편상인, 아편 무역의 합법화, 아편 무역 중심지, 중국 내 아편재배와 아편생산량(1906년)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동인도회사 아편의 대중국 수입의 종결로서 중국과 영국의 금연에 대한 조건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을 나오면 복도를 개조하여 체험교육 학습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진자료와 간단한 체험도구가 있다.

2) 디지털 박물관

아편전쟁박물관 바이두백과(百度百科) 디지털박물관은 2014년 국제마약금지일(6.26)에 공식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²⁰⁾ 전면에 호문소연 전경을 배치하였고 아편전쟁관련 의 문물관, 아편흡연 도구관, 임칙서 글씨그림관, 항해도구관, 흡연 그림관과 호문소연관 등 6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문물 87건을 전시하였는데 59점은 사이버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고 나머지 28건은 호문소연의 전시품이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1백 여년 전의 호문소연이나 아편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흡연도구, 무기 등을 확대 축소할 수 있으며 설명과 녹음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전시물을 확대할 수 있으며 바이두백과로 연동되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III. 기억의 재현을 위한 활동과 교육콘텐츠 역할

중국에서는 문물보호법(1982)을 발효한 이후 문물관리와 함께 박물관 관리 및 운영 등의 조례를 제정하고 법규와 건설에 대한 표준 규범화로 관리 수준을 높였다.²¹⁾ 개혁개방 이전에는 역사류의 종합박물관이나 혁명류의 기념관이 대부분이었으나 자연, 지질광산, 예술, 민속, 특정분야, 기업 등으로 점차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의 소장품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화되고 점차 고품질화하고 있다.

광동의 주강삼각주지역 박물관은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범주삼각문물정화전, 粵香澳문물대전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도시팽창에 따른 대규모 박물관 건설과 현대화에서 광동성박물관이나 심천박물관, 광동해상실크로드박물관, 신해혁명기념관을 비롯하여 지방 도시의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협력하면서 새로운 박물관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²²⁾

20) 바이두백과 디지털박물관은 2015년 국제박물관의 날인 5월18일에 3.0으로 향상되었다. 아편전쟁박물관과 바이두백과디지털박물관이 처음이며 앞으로 전국 최대의 사이버망연합으로 50여개관 이외에 1500여개관이 연합할 것이다(<http://baike.baidu.com/view/104170.htm>)

21) 전시 명품화 전략(1997)을 추진하면서 10대 진열전람 명품선정(2001년) 활동과 국가寶藏(2006), 5천년 기억, 장강문명, 과학기술의 기적천공, 부흥의 길 등의 대형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2) 『中國博物館年鑑』, 科學出版社, 2010, 185-186쪽.

새로 건립되어진 혁명박물관, 혁명지도자 기념관과 명인고거기념관(名人故居紀念館)이나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폭로하는 전시관 등에서 혁명지도자에 대한 교육활동과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전시활동, 세계 반과시즘 전쟁승리 기념활동 등 활발한 전시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협력으로 광둥 유동박물관네트워크, 유동도서관망, 연출망 등을 구성하고 애국주의 교육기지에 대한 순회전시회와 공공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은 문화시설에 대한 무료개방(2008년)과 애국주의 교육기지에 지정된 박물관 1,743관이 참여하고 있다.²³⁾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혁명지도자와 위인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전통교육을 시행하면서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홍색관광으로 연계하고 사이버박물관, 학교와 주민생활 활동을 확대하였다. 중요혁명지역을 여행하는 홍색관광은 중요혁명지역의 12개 중점 홍색관광지구와 30개의 홍색관광 주요노선이 있다. 100개의 홍색관광명소(紅色旅遊經典景區)의 국가 관광지구 80%가 3A급 이상이며 그 중40%가 4A급이다.²⁴⁾

아편전쟁박물관에서는 박물관 문화를 확대하고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모기념활동과 지역순회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애국주의 함양과 금독교육에 노력하고 있다.²⁵⁾

1. 추모기념활동

아편전쟁 유적지의 소연지, 포대, 성벽, 순국자 묘지 등 추모기념활동의 중요한 장소이다. 전쟁관련 기념일인 사각해전기념일(1.7), 호문전투 기념일(2.26)에는 학생, 지역민, 군인, 기관, 기업인 등이 합동으로 추모행사와 함께 전문 강좌를 비롯하여 전쟁지역 현장체

23) 박물관과 기념관 등을 애국주의교육기지의 주요한 시설로 지정하였다(1995).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1996)를 결의하면서 박물관과 혁명기념관을 사회주의 문화사업의 공익성 사업단위가 되었다. 1997년에는 문물공작에 대한 강화와 개선(1997)으로 문물 박물관사업의 개혁방향을 명확하게 하였다.

24)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은 '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 實施綱要)'에 7개의 주제에 40개 항목이다.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비롯하여 청소년 중점의 교육활동, 교육기지 건설, 교육적 사회분위기 조성, 예의를 제창하고 애국의식을 증강, 선진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我的祖國-愛國主義教育基地網上展에는 대형역사문화 공경, 356개 망상디지털박물관, 전면적 홍색관광전자수첩의 전문적 홈페이지를 연동하여 중국 전지역 성과 도시의 애국주의 교육지역을 보여 주고 있다.<http://zuguo.cntv.cn/>徐仁立,『中國紅色旅遊研究』,中國金融出版社,2011. 중요혁명지역은 '2004-2010年全國紅色旅遊發展規劃綱要'(<http://www.crt.com.cn/second.htm>.中紅網):박충환,『홍색관광과 기억의 정치학: 개혁개방 후 중국,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기』,『현대중국연구』13(1),2011,118-157쪽.

25) 張巨保,『高擎宣教創新大旗 打造愛國主義教育基地品牌-阿片戰爭博物館宣教創新經驗和做法』,『博物館·文化遺產與教育』,2013,99-109쪽.;이준태·김정현,『중국인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인식에 대한 계량 분석적 고찰』,『세계지역연구논총』29(1),한국세계지역학회,2011,185-204쪽.;이동윤,『90년대 중국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중국학연구』21,중국학연구회,2001,321-344쪽.

협과 애국주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명절에는 임칙서와 관천배를 비롯하여 순국 묘지의 영령에 대한 추모 연합행사와 함께 임칙서 동상에서 음악회와 예술 공연활동을 비롯하여 전문가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이외에 춘절, 노동절(5.1), 국제금독일(6.26) 등은 소연지와 해전박물관에서 기념행사와 음악회 그리고 국제박물관의 날(5.18)에는 무료 문물감정 활동을 하고 있다.

2. 지역순회활동

학교, 기업 등을 찾아가는 이동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호문웅혼의 순회전시활동과 임칙서, 아편전쟁, 호문소연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박물관의 날에는 사진 촬영대회를 하며 국제마약금지일에는 금독 순연분대를 조직하여 임칙서와 호문소연에 대한 전문 강좌를 기업, 학교, 지역사회, 교도소 등에서 진행하며 금독 현황보고와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주장 삼각주지역의 박물관을 비롯하여 홍콩과 마카오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마카오의 임칙서기념관에서 전시회와 금독교육 순회사진전(2010년)을 하였다. 또한 홍콩과 마카오 학생들과 연합하여 호문해전기념일 행사와 전쟁지역 체험활동, 순국영웅이야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3. 애국주의 교육활동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기지는 353곳으로 청소년에게 중화민족의 진흥을 위하여 1차(100곳, 1995년), 2차(100곳, 2001년)에 이어서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 전쟁 승리 60주년 그리고 홍군장정승리 70주년(2006)으로 3차(66곳, 2005년)을 지정하였다. 4차(87곳, 2009년)는 중화인민공화국성립 60주년으로 지정하였다.

애국주의 교육활동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학교, 부대, 향촌, 거리, 기관과 기업 단위 등의 공청단(共靑團), 소년대 등의 조직을 통하여 각종 박물관과 기념관, 열사기념건축물, 혁명전쟁 중의 중요전투 기념시설, 문물보호단위, 역사유적과 풍경명승지 등을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 장소로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편전쟁박물관의 호문소연과 소연지, 호문포대 등은 애국주의 교육의 주요한 활동장소이며 주체로서 학교, 기업, 군대 등 80여 기관과 연계협력을 하고 있다. 학교는 역사 강좌, 실습교육, 해설원 무료봉사 교육을 하고 있다. 5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의 금독기간에는 보고회, 문예전시, 역사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소년대원, 공청단원을 비롯하여 해설 복무대를 조직하여 해설내용,

예의, 보통화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안내와 전시 해설, 질서유지, 홍보자료 배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의 연계는 외부 유입 근로자들이 80%이상인 제조업 중심도시인 동관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순회 전시를 하고 있으며 군대와는 병영생활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과 가족을 위한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현장 답사과정에서 습득한 자료<표1>을 살펴보면 소연지와 해전박물관, 위원포대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아편전쟁박물관의 겨울방학 체험교육활동프로그램

활동주제	활동시간	활동형식	활동장소	등록인원
함께 가자	2월3일(화) 9시-11시30	170여년 전의 청나라 복식의 아름다움 체험 IPAD와 스마트폰 지참 15항목의 하이테크 전시기법 체험	임척서소연지	10가족
신비한 배낭	2월4일(수) 9-11:30	해설원 누나 배낭속의 신비한 보물을 함께 찾아라	임척서소연지	15명
비밀공간	2월5일(목) 9-11:30	전시실의 신비한 출입금지구역 체험 박물관 보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1회 개방	임척서소연지	10가족
박물관 이미지	2월6일(금) 9-11:30	사진작가가 되어서 박물관 유물을 촬영	임척서소연지	15명
과학대중화 극장	2월7일(토) 10:30-11:30	생활 속의 과학을 대중화와 지식보급 엄마 아빠와 함께 박물관에서 과학을 찾자	임척서소연지	무제한
양띠 해 종이오리기	2월7일(토) 10-11:30	PPT를 활용하여 중국 춘절의 유래와 습속이 해 전지 예술가의 현장공연과 전지 체험	해전박물관	10명
복을 받는 봄맞이	2월11일(수) 9-11:30	봄맞이 휘호쓰기 전문 서예가의 강좌 체험	임척서소연지	무제한
전쟁터로 달려가자	2월26일(목) 9-12	현장에서 청나라 군사체험 전쟁환경과 전투정신, 민족적 애국주의 함양	위원포대	30명
원소절	3월5일(목) 10-11:30	원소절에 대한 이해와 체험	해전박물관	무제한

(현장답사에서 습득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함)

IV. 맺음말

중국에서 아편전쟁은 근대화의 시작이지만 서구제국 열강의 침략에 의한 불평등 조약으로 반봉건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 또한 아편무역에 종사한 서방국가 뿐 아니라 중국의 13행 상인들은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 부도덕한 상인집단으로 낙인되었다. 그러나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참가한 관병과 지역의 인민들은 대외항쟁의 영웅적 애국주의 활동의 전형적인 집단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관영매체와 국가박물관에서는 대외항쟁과 국난을 극복한 영웅들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하거나 중화민족의 부흥과 발전에 대한 초대형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역사문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은 아편무역에 의한 전쟁의 결과에 따른 불평등한 조약으로 근대화가 시작된 중국이 대외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철폐하고 개혁개방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등으로 해양에 대한 경제적 패권주의를 확장한다고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발발 장소나 항쟁장소에 각종 기념 전시물과 기념시설로 재현되었으며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여 애국주의 활동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해양세력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제국주의 세력 중에서 일본과의 전쟁 장소인 북경의 노구교에 자리한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산둥성 위해의 중국갑오전쟁박물관, 강소성 남경의 학살기념관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고 이외에 흑룡강성 하얼빈역의 안중근기념관이나 요녕성 여순감옥 안중근기념관, 심양의 9.18사변기념관이 새로이 단장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3천8백여 개의 기념관과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전국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 353관을 지정하여 전시와 민족적 문화유산의 사회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근현대사의 혁명유적지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 등을 강화하고 야외 문화유산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전개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둥관시의 아편전쟁박물관은 임척서기념관을 확장한 것으로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인 소연지를 포함하여 해전박물관과 위원, 사각 등의 포대를 관리하고 있다. 아편전쟁관련의 문화보호와 연구, 전시, 교육하는 종합적인 전문박물관으로 기념성과 유적지 성격을 결합하였다. 그리고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 지정된 전국청소년교육기지이며 국가급 관광지구, 국방교육기지, 중화문화전승기지, 홍색관광시범기지, 전국 금독교육기지이다.

결론적으로 아편전쟁박물관의 활동과 역할은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소연지와 포대, 성벽, 순절자의 묘지 등에서 전쟁 기념일이나 명절이나 국제마약금지일 등에 추모기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순회전시와 관련 아편전쟁 영웅들의 영화 상영을 비롯하여 전문 강좌를 진행하는 지역순회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과 부흥이라는 교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애국주의 함양과 금독교육에 노력하면서 교육콘텐츠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근대화에 대한 역사인식과 서양 제국의 부도덕한 아편무역과 불평등한 조약 그리고 치욕적인 침탈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로 표현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애국주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요혁명지역을 여행하는 홍색관광 명소의 80%가 국가급 관광지구로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근대화의 시발점인 아편전쟁의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시설의 콘텐츠에 대한 내러티브의 체계적인 구조분석과 함께 인문학적 의미와 특징에 대한 교육콘텐츠의 심층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정현,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의 애국주의와 평화문제」, 『역사학연구』35, 2009, 177-212쪽.
- 김태만, 「시진핑의 ‘중국몽’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문화연구』37, 2013, 5-31쪽.
- 박경석,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갈등-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41, 2009, 167-187쪽.
- 박기수, 「명청사학회 중국역사유적 답사보고-廣東珠江三角洲 답사」, 『명청사연구』39, 2012, 239-334쪽.
- 박충환, 「홍색관광과 기억의 정치학: 개혁개방 후 중국, 가까운 과거와 관계맺기」, 『현대중국연구』13(1), 2011, 118-157쪽.
- 송상광·오일환역, 「중국 박물관 현황과 대학박물관 발전방향」, 『고문화』79, 2012, 135-146쪽.
- 오일환·이미, 「중국 광저우(廣州) 도시경관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한국사진지리학회지』25(2), 2015, 1-13쪽.
- 오일환, 「중국의 박물관·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고문화』52, 1998, 253-273쪽.
- 이동율, 「90년대 중국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21, 중국학연구회, 2001, 321-344쪽.
- 이은자, 「광동13행과 개항의 기억」, 『사춘』76, 2012, 165-192쪽.
- 이준태·김정현, 「중국인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인식에 대한 계량 분석적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29(1),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185-204쪽.
- 조은경, 「한·중·일기념관의 전시내러티브와 동아시아 역사인식-독립기념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47, 2014, 197-223쪽.
- 甘新·崔頌東·李江濤·陸志强, 『廣州文化創意產業發展報告』(廣州藍皮書),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 廣東省博物館 編, 『廣東省博物館 開館五十周年紀念論文集』(1959-2009) 嶺南美術出版社, 2009.
- 廣東省博物館 編, 『廣州 百年滄桑』, 花城出版社, 2003.
- 廣州博物館 編, 『廣州歷史文化圖冊』, 廣東人民出版社, 1996.
- 冷東·趙春晨·章文欽·楊宏烈, 『廣州十三行: 歷史人文資源調研報告』, 廣州出版社, 2012.
- 司徒尚紀, 『嶺南歷史人文地理- 廣府, 客家, 福佬民系比較研究』, 中山大學出版社, 2001.
- 徐仁立, 『中國紅色旅遊研究』, 中國金融出版社, 2011.
- 徐俊忠·陸志强·顧閏清 主編, 『中國廣州文化發展報告』(廣州藍皮書),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石秀峰·陳麗瑩·叶清紅·張勵怡·卓瑤專, 『博物館·文化遺產與教育-廣州市愛國主義教育基地
解說系統調查研究』, 中國農業出版社, 2013.

全國紅色旅游工作協調小組辦公室 主編, 『中國紅色旅游發展報告』(2009), 中國旅游出版社,
2011.

許桂靈, 『中國泛珠三角區域的歷史地理回歸』, 科學出版社, 2006.

中國博物館學會 編, 『中國博物館志』, 華夏出版社, 1995.

『中國博物館年鑑』(2010)第1版, 科學出版社.

<http://www.ypzz.cn>(阿片戰爭博物館)

<http://www.dg.gov.cn>(東莞)

<http://www.stats.gov.cn>(統計局)

<http://www.sach.gov.cn>(國家文物局)

<http://www.guangzhou.gov.cn>(廣州)

<http://www.crt.com.cn>(中紅罔)

<http://zuguo.cntv.cn/>(愛國主義教育基地網上展館)

〈ABSTRACT〉

A Study on the Exhibition Contents and Roles of the Opium War Museum in China

Oh, Il-Whan* · Kim, Jun-Hyuk**

This study investigated exhibitio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museum and memorial relating to the Opium Wars in China and examined diverse memorial activities, exhibitions and educational activities. China has built large-scale memorial and museum to preserve cultural heritage which has been poorly managed under rapid economic change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and keep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Chinese people. To preserve tradition and inherit its historical legitimacy, China has also strengthened social education against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adolescents. For this, the revolution site and outdoor cultural heritage from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have been comprehensively restored and designated as the base for patriotic education. Guangdong Province where the Opium War Museum is situated is the cradle of southern culture and economic center of the Pearl River region. In fact, it is a key region for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i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launched by President Xi Jinping, which was aimed to banish the vestiges of Western colonial rule and build ‘Chinese Dream’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and Macau to Chinese sovereignty. The Opium War Museum is a space where the memorials and exhibition facilities aimed to overcome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 Western Empire’s immoral opium trade, unequal treaty and shameful invasion, restore the glory of Chinese people and raise patriotism are reproduced. The diverse activities and exhibition contents of the museum are used to give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evil influence of opium, and the war memory and historical awareness are used as tourism resources.

*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Humanitas College, Associate Professor, ohil@khu.ac.kr

** Hanshin University, King Jeongjo of Liberal Arts, Assistant Professor,
jhkim1789@hanmail.net

Key Words : The Opium War Museum, Memory & Representation, Patriotic Education, Exhibition & Education Contents, Tourism Resources